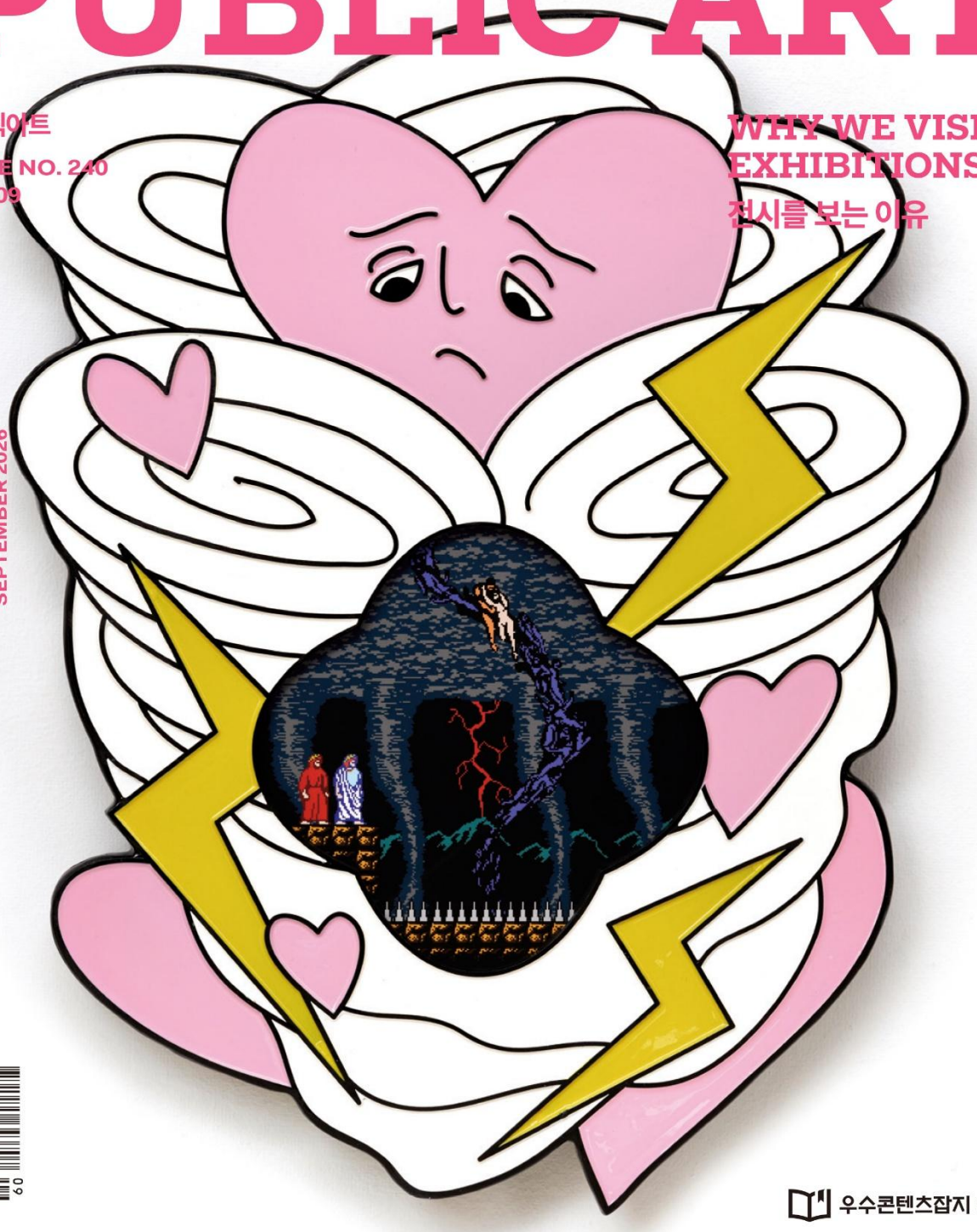
PUBLIC ART

퍼블릭아트

ISSUE NO. 240
202609

WHY WE VISIT EXHIBITIONS

전시를 보는 이유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ARTINPOST.CO.KR
SEPTEMBER 2026

ISSN 1975-6437

우수콘텐츠잡지 2026

월간 퍼블릭아트

PUBLIC ART

목차

038 EDITORIAL
· 어깨동무_정일주

040 ART LOG
· 2026 창원조각비엔날레: 공명장
·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 박서보와 흐엉 도딘: 비움 그 충만
· 게오그르 바젤리츠
· 2026부산비엔날레: 불협하는 합창
·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땅이 만든다

046 SPECIAL FEATURE
전시를 보는 이유: 예술의 심리학
Ⅰ. 우리는 왜 미술 전시를 보는가_김수환
Ⅱ. 내가 전시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나요?_이기원
Ⅲ. 우리는 왜 전시장에 가는가? - 어둠을 중심으로 살펴본 스크린 너머의 전시 경험_김윤진
Ⅳ. 나와 모두의 해방 공간: 인지심리학으로 전시 읽기_홍준영

070 ARTIST
· 세실리 브라운 · 숲_김성연
· 김성환 · 구조를 연습하는 일 - 김성환의 워크숍_박가희
· 전형산 · 알맞은 값을 향해_이지언

092 PUBLIC & TECH
· 지금, 서울 아트 맵_김성연

102 ART WORLD
· 영국 · 프리다: 아이콘의 탄생_전명아
· 스위스 · 차오 페이_다가올 미래의 증언_김유진
· 미국 · 친애하는 미국에게, 미국의 아이콘_이한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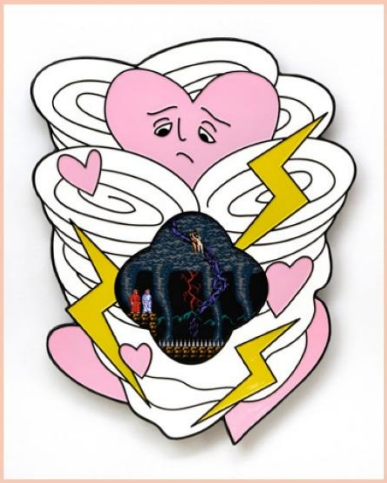
118 ART MARKET
· 대형 전시의 새로운 조건: 블록버스터의 NEXT?_서지은

124 PREVIEW
· 우리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
·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차기율_화해기 和海記
· 도시 정원
· 대항해 시대, 미확정 지도

128 REVIEW
· 김지아나_사라진 것들의 기관, 버려진 감정들의 무대
· 대구포럼 V: 바깥을 향한 속삭임
· 김희재_IT'S ALL DINOSAUR
· 정지된 부산 2050

134 KEY WORK
· New Media, New Technology, New Artists
· 2027 청주공예비엔날레 준비 돌입
· · GO · STOP · BACK · ING · - 취약함과 연약함
· MMCA 지역동행 - 예술영화·다원예술
· 키아프 서울 2026
· 옐로우 펜 클럽 2026 서머 캠프
· 포레스트 플로어 "그 말을 들으니 나는…"
· 제19회 잡지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 돈의 미술사

COVER STORY



김한샘 <사랑 폭풍> 2024 Acrylic paint, clear acrylic sheet, engineered wood, pigment print 68.5×54.5×4.5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소용돌이와 번개 사이, 핑크색 하트가 근심 어린 얼굴로 있다. 마치 아날로그 게임의 한 순간 같다. 깜찍한 그림체에 어딘가 의뭉스러움을 품은, 이 작품의 키워드는 '사랑'과 '폭풍'. 숲에서 길을 잃은 인물이 지옥을 여행하는 단테(Dante Alighieri) 『신곡』의 「지옥편」을 모티프로, 각 장에서 추출한 장면을 재탄생시킨 김한샘의 시리즈 중 하나인 <사랑 폭풍>은 제5곡의 "잠시도 쉬지 않는 지옥의 태풍은 난폭하게 영혼들을 몰아붙이며 뒤집고 흔들면서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문구에서 비롯한 애욕의 죄를 지은 죄인들이 폭풍에 휩쓸리는 장면을 그려낸 것이다. 시대의 서사와 양식을 결합해 익살스러운 혼종적 형태를 만드는 1990년생 작가 김한샘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만화, 게임, 소설, 고전 영화, 굿즈를 비롯해 동시대 디지털 문화까지 여러 하위문화로부터 영감을 받는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방법론을 충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를 작품의 주요 요소로 삼으며, 기성의 서사를 비틀고 상상의 문법을 덧입혀 매일 접하는 현실을 새롭게 보도록 한다.

NO. 240 SEP 2026

KEY WORK EXHIBITION 키워크: 전시

· 기획 · 진행 편집부

<New Media, New Technology, New Artists>
호텔 안테룸 서울 GALLERY9.5에서 개최

전시 전경

전시 전경

기다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안테룸(anteroom)'은 매일 사람들이 모이고 준비하고 머무는 장소다. 단 며칠로 끝내는 여행지로서의 서울이 아니라, 삶의 일부처럼 '내집 같이' 편안한 공간을 운영하는 이 호텔의 GALLERY9.5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전시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선보이는 국제 뉴미디어 아트 전시 <New Media, New Technology, New Artists>(이하 NNN)에는 한·일·대만 9명의 아티스트와 큐레이터까지 총 11명이 참여,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뉴미디어 아트의 교차점을 제시한다. VR·3DCG·NFT·게임 아트 매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는 관람객이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아티스트의 예술세계에 언어의 벽 없이 접근하도록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작품들은 매체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VR, 3DCG, NFT, 게임 아트 등 각기 다른 방식을 지닌 아티스트의 작품이 한곳에 모여, 여러 기술과 매체가 교차하는 지금의 표현과 관점을 제시하는 것. 한편 이 전시가 특별한 것은 관람객이 작품을 마주하는 방식에 있다. 각 참여 아티스트의 사고방식과 창작 언어를 학습한 AI 에이전트 'ego Graphica'가 작품 옆에 함께 전시되 관람객은 작가와 직접 대화하듯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언어의 장벽 없이 국제 아티스트의 예술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감상 경험이다.

전시는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되는데 홍이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가 기획을 맡은 1부에는 김한샘, 상희, 이토 아오(Ao Ito), 코바야시 켄타(Kenta Cobayashi), 사이키 슌스케(Shunsuke Saiki) 5명이 참여해 지난달 말 개최됐으며 대만 기반 독립 큐레이터 치아 린 엔지 리(Chia-Lin Angie Lee)가 기획한 2부가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마련돼 첸첸(Chen Chen), 타카쿠라 카즈키(Kazuki Takakura), 묘지 나마에(Namae Myoji), 2엔터(2ENTER) 4명의 작업을 선보인다.

일본의 ArtFanders Inc.가 주최하고 호텔 안테룸 서울이 공동 주최한 전시에 대해 호텔 안테룸 서울 관계자는 "'예술과 문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이라는 브랜드 정체성 아래 GALLERY9.5를 운영해 온 만큼, 이번 <NNN>은 관람객이 작가·AI·다국적 아티스트와 다층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라며 "일상에서 예술과 기술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ALLERY9.5는 젊은 아시아 아티스트의 창의적 교류와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무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연장선에서 이번 <NNN>에서 발생한 GALLERY9.5의 판매 수익금은 신진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에 기부해 전시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예술 공동체에 기여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 전시는 관람객이 큐레이터와 아티스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 지난달 15일 2인의 큐레이터가 전시를 소개하는 '오프닝 토크·리셉션' 진행에 이어 2부 개막 다음날인 9월 4일 오후 6시에는 작가들이 관람객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아티스트 크로스 토크&네트워킹'이 진행된다.

전시는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호텔 안테룸 서울 지하 2층 GALLERY9.5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호텔 안테룸 서울(rsvn@anteroom.co.kr)로 문의하면 된다.